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26

# 대자대비에 귀의하고 行하라

**[원문]**  
병상록양삼제하(瓶上綠楊三際夏)  
암전취죽시방춘(巖前翠竹十方春)  
일엽홍련재해중(一葉紅蓮在中海)  
벽파심처현신통(碧波深處現神通)  
-운문사 관음전

**[번역]**  
꽃병에 꽂힌 버들 항상 여름인데  
바위위의 대나무는 사방의 봄 일세  
한 잎 연꽃은 바다 가운데 떠 있고  
푸른 파도 깊은 곳에 신통으로 나타나시네.

**[신해(禪解)]**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류의 정로(正路)를 명시(明示)하셨으며 우주의 본체를 구명(究明), 미신의 테두리를 벗어나 즉심시불(卽心是佛)의 사자후를 통하여 암흑천지를 밝혀주기 위해 불교를 창도하셨다.

“자기 자신을 믿어라. 그리고 자기 자신에 귀의하라.” 자신 이외의 신에게 의지한다거나 남을 의존하는 것은 결코 안 되는 것이라고 강력히 역설하셨다.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은 바로 이런 뜻을 확실히 명시하신 일대 혁명선언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의 대도(大道)가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다소 변질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또한 그 방편(方便)의 가설(假設)들이 너무나 다양다색(多樣多色)하게 나타나 불교의 진수(眞髓)와 정로(正路)를 찾기가 매우 혼미해졌다. 불교가 여러 종파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도 여러 곳에서 거의 매일 법회(法會)가 많이 열리고 있는 것은 그만큼 불교가 생활 깊숙이 자리하는 증거가 아니고 또 무엇이겠는가? 참으로 다행한 일이요 경복(景福)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것도 옛날과 달리 스님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도 깊은 교리를 전문성 있게 연구하여 이론상 또는 학술상으로는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 이런 분들이 곳곳에서 불교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오늘날 불교는 대중화 현대화 되었다. 하지만 이것을 아무런 비판과 분석조차 없이 그냥 발전현상이라고만 치부하기에는 뭔가 아쉬움이 남는다.

불교란 이론과 설명과 학술에 그 진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의 수행과 정경의 정진에 진실한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이론이나 설명 따위는 실천의 수행과 정경의 정진을 하기 위해 그 바른 길을 찾는데 필요한 보조수단에 불과하다. 이론과

설명과 가지고 성불했다는 사실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견해(見解)나 지식(知識)만으로 해탈의 정상을 점거할 수는 절대 없다는 것이다. 이를 우리 불자들이나 불교 학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오늘날 불교는 참으로 다양해 졌다. 매년 사람들은 일반 불자들을 단기 출가로 이끄는 행사를 하고 있으며, 사찰 템플스테이도 그 중의 하나이다. 심지어 불교TV에서는 금강경을 경계에 접목시켜 우승택의 ‘32개의 경제지표로 공부하는 금강경’을 강의하고 있다. 또한 김홍경의 ‘마음의학’도 바로 불교적 관점에서 해석한 것이다. 이것은 불교 포교적 관점에서 볼 때 참으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불교는 승가(僧家)의 전유물이 아니며 또한 고인 물처럼 불교도 한 곳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반증한다. 흐르는 물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한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이와 같이 불교도 끊임없이 발전하여야만 한다. 이런 와중에 보다 중요한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을 위해 왕건을 도왔던 보양(寶壤)이 오갑사(五岬寺)를 중창하였다. 고려 태조 왕건이 보양의 공에 대한 보답으로 운문선사(雲門禪師)라고 사액하였다. 조선 임진왜란 때 당우 일부가 소실되었다가 속중 때 다시 보수가 되었다. 현재는 30여 동의 전각이 있는 큰 사찰로서 규모를 갖추었다. 운문사는 1958년 불교정화운동 이후 비구니 전문 강원을 개설했고, 1987년 승가대학으로 개칭되어 승려교육과 경전연구기관으로 수많은 수도승을 배출하고 있다. 현재 많은 비구니 스님들이 이곳에서 경학을 수학과, 계율을 수지봉행하고 있으며,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백성 정규를 철저히 실천하고 있다. 운문승가대학은 국내 승가대학 가운데 최대의 규모와 학인수를 자랑하고 있다.

그럼 관음전 주련 내용을 살펴보자.  
‘병상록양삼제하/ 암전취죽시방춘: 꽃병에 꽂힌 버들 항상 여름인데, 바위 위의 대나무는 사방에 봄 일세.’

꽃병위에 꽂힌 꽃은 시들 뿐 변하지 않지만 사계는 항상 변화한다. 이러한 순환이 없다면 인간은 살수 없다. 이 대자연의 법칙 속에서도 인간의 존재는 무기력하다.

## 관음보살은 어머니 같은 사랑으로 중생 보살피 시간과 공간 초월한 가르침 실천할 때 불국토 성취

근본 사상이 변화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다. 부처님의 근본 사상은 자비사상이다. 그리고 끝없는 자기 수행을 통한 성불이다. 이를 간과해서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를 우리 스님들과 불자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오늘의 주련 여행은 운문사다. 운문사 사자에 의하면, 진흥왕 때 탄신(神僧)이 북대남 옆 금수동에 작은 암자를 짓고 3년 동안 수도하여 도를 깨닫고 지인의 도움을 받아 7년 동안 동쪽에 가솔 갑사, 서쪽에 대비 갑사(현, 대비사), 남쪽에 천문 갑사(현, 운문사), 북쪽에 소보 갑사를 짓고 중앙에 대각 갑사를 창건하였으나 현재 남아 있는 곳은 운문사와 대비사 뿐이다.

그 후 600년 원광 국사가 중창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당시 그는 대각 갑사와 가솔 갑사에 머물면서 점찰법회를 열고, 화랑도인 추함과 귀산에게 세속 오계를 내려줌으로써 화랑정신의 발원지가 되었다.

오갑사가 창건된 시기는 신라가 불교를 중흥하고 삼국통일을 위해 국력을 집중, 군비를 정비할 때였다. 이때 오갑사가 운문산 일대에 창건되고 화랑수련장이 만들어진다. 그것은 곧 신라가 서남 일대 낙동강 유역으로 국력을 신장해가는 과정으로서 운문산 일대가 신라의 병참기지로 전략상의 요충지였기 때문이다.

그 후 당나라에 유학하고 돌아와 후삼국의 통일

다. 하지만 부처님의 근본 사상은 늘 있는 그대로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온 중생이 그 위대한 가르침을 실천할 때 불국토는 성취된다. 이 구절이 낯익은 독자도 있을 것이다. 낙산사 흥련암의 주련을 얘기할 때 음미해본 구절이다. (736호 13면 참조)

‘일엽홍련재해중/ 벽파심처현신통: 한 잎 연꽃은 바다 가운데 떠 있고 푸른 파도 깊은 곳에 신통으로 나타나시네.’

관세음보살님은 한 잎 연꽃 바다 한가운데 떠 있고 언제나 정법, 삼법을 두루 사바세계에 펼치면서 일체 중생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대성자모관세음보살님이다. 여기에 어머니 ‘모(母)’자가 들어가는 이유는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가장 넓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관세음보살님은 모든 중생들의 어머니인 것이다. 중생은 그 한량없는 대자대비에 귀의하고 또 스스로 그 대자대비를 베푸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오늘 날 문명은 오직 머리와 지식만을 믿고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파괴되고 있다. 어쩌면, 미래에 우리는 아주 절박한 위기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어머니와 같은 자비심을 가진 관세음보살님이 곁에 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힘이다.

■ 조계종 원로의원

###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26

## 모양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

**[원문]**

本性即是心 心即是性 此即諸佛心 前覺後覺 只傳此心 除此心外 無佛可得 顛倒衆生 不知自心是佛 向外馳求 終日忙忙 念佛禮佛 佛在何處 不應作如是等見 但識自心 心外更無佛 經云凡所有相 皆是虛妄 又云所在之處 卽爲有佛 自心是佛 不應將佛禮佛 但是有佛 及菩薩相貌 忽爾見前 切不可禮敬.

“본성이 마음이고 마음이 곧 본성이니 이것이 곧 부처님들의 마음이니라. 앞서 깨달은 부처님과 뒤에 깨달은 부처님이 오직 마음으로 전하신 것이므로 마음을 떠나서 따로 부처를 이룰 수 없느니라. 도리에 어긋난 생각 때문에 어리석은 중생은 자기의 마음이 바로 부처인 줄 모르고 밖으로만 구하느라 분주하게 열불하며 열심히 절하는데 부처가 어디에 있느냐? 이와 같은 견해를 내지 말지니라. 자기의 마음을 알기만 하면, 마음 밖에 따로 부처가 없느니라. 경에서 말씀하시길 ‘무릇 모양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한 것이다’ 하였고 ‘존재하고 있는 것이 곧 부처가 있는 곳이다’ 하셨느니라. 자기의 마음이 부처이니 부처가 부처에게 절하지 말지니라. 헛되이 부처와 보살의 모습이 홀연히 나타나면 절대 예경하지 말지니라.”

**[해설]**

가성존자가 깨달은 진리는 우주의 근본실상, 즉 마음이요, 본성이요, 부처라는 것은 단지 이름일 뿐입니다. 깨닫고 보면 그 어떤 표현도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깨닫지 못한 분 입장에서는 깨달은 분이 위대한 분이요 신기한 분이요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같은 경지에 들어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앞서 깨달은 분이냐 뒤에 깨달은 분이냐 똑같은 그 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서로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본래 마음이 부처인줄 모르고”라는 말씀은 달마 스님께서 말세에 사는 우리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본래 ‘생각하기 이전의 자리’가 부처인데 밖으로 도를 구하려고 어리석은 수행을 하는 우리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고자 열불을 한다면 부처를 어떻게 구하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영원히 부처를 구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깨닫고자 한다면 내 마음이 본래 부처다 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해야 되며 절을 할 때도 문자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실상의 자리에 마음을 두고 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 표현으로 합장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주 근본 마음자리에 두고 해야 공덕이 그

대로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내지 말아라”고 하신 것은 우주의 근본실상만 알면 부처는 따로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 그대로 현상계 부처 아닌 게 없는 까닭입니다. 하나로 봐야 된다 이 얘깁니다. 이렇게 보고, 열불할 때도 그 분이 우주와 하나라는 생각을 하면 그대로 열불선(念佛禪)이 되면서 조사선(祖師禪)도 되는 겁니다. 달마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밖에 구하는 열불을 하지 말아라’ 하시는 겁니다. 그때는 간화선도 없었어. 열불이나 계율을 지키는 수행을 했기 때문에 내 마음 밖으로 부처가 따로 있다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경에서 말씀하시길 ‘무릇 모양(형태, 생각)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한 것이다’ 하였고 ‘존재하고 있는 것이 곧 부처가 있는 곳이다’ 하셨느니라.”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 진실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형상 그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곧 부처다. 부처 아닌 게 없고 마음 아닌 게 없다 이런 말 씁니다. 마음 아닌 것이 없으니 모두 마음이니가 꽃도 부처, 시계도 부처, 노보살님도 부처, 개부처, 소부처 하는 거예요. 모르는 분들은 “불교는 개도 부처고 소도 부처”라고 비아냥 거리는 경우도 있었습디다. 진리 상에서 보면 하나이니가 ‘소부처’, ‘개부처’요 하고 이름을 붙여놓았을 뿐이지, 본래 실상은 표현 할 수 없으니가 실상은 아

닙니다. “자기의 마음이 부처이니 부처가 부처에게 절하지 말지니라.”

내가 부처인데 왜 부처한테 절을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부처가 안 됐잖아

요 중생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부처자리에 돌아가기 위해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불상을 향해 절을 하지만 마음은 절을 하고 있는 본래 마음자리를 향해 절을 하며 본래 성품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절을 하셔야만 합니다.

정진을 하다 부처가 보이고 보살이 보이면 ‘무엇을 봤다’고 공부라 된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이런 것에 휘둘리지 말라는 얘깁니다. 절대 절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는 보살 형상이나 부처 형상은 사된 생각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부처는 모양이 없으니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속지 말라는 얘기죠.

정진 중에 나타나는 환(幻)의 현상은 마음에 틀이 생겨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또한 마음에 맑아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절대로 정진 중에 나타나는 현상에 휘둘리지 마시고 더욱 집중을 통해 뛰어넘어야 합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이담 김은호의 '달마 도강도(渡江圖)' (간송미술관 소장).

##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사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연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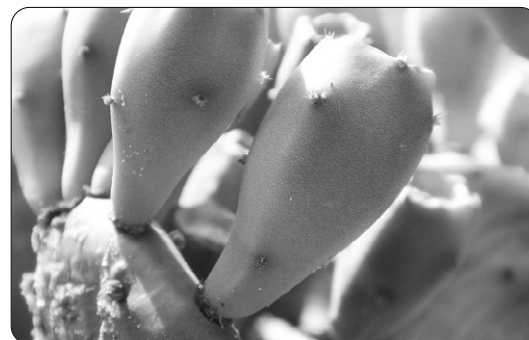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37번지  
성화미술원 공장내 불교전시관

주.야 상담 합니다

◊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 [114 서비스] 검색 → 114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C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과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C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